

즉석밥·빙과·음료 등 슬그머니 값 인상, 장바구니 비상

농·축·수산물 전년비 10.6% 상승

오뚜기 즉석밥 3종 평균 8% ↑
롯데제과 디저트류 10%대 인상



최근 가격이 오른 오뚜기 즉석밥 '오뚜기밥'

식자재 가격이 인상함에 따라 최근 식품업체가 잇따라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식품업체에 따르면 오뚜기는 최근 즉석밥 3종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했다. 오뚜기의 즉석밥 3종은 작은밥(130g), 오뚜기밥(210g), 큰밥(300g)이고, 오뚜기밥 기준으로 710원에서 770원으로 올랐다. 오뚜기 측은 쌀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도 목캔디와 찰떡파이의 가격을 평균 10.8% 인상한다. 작은 상자에 들어 있는 목캔디는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으로 800원에서 1천원으로 200원 오른다. 대용량 제품들은 가격을 유지하고 용량만 축소한다. 둥근 용기 타입의 목캔디는 137g에서 122g으로, 대형 봉 타입은 243g에서 217g으로 축소한다.



평균 10%를 인소한 나뚜르 아이스크림

롯데제과의 나뚜루 파인트와 컵 아이스크림 가격은 평균 10.5% 올랐다. 바와 컵은 3900원에서 4300원, 큰은 3800원에서 4300원, 파인트는 1만5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롯데푸드 역시 지난 6월 편의점에 납품하는 썬모도로 스낵케티 가격을 3천 800원에서 4천3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월 일부 음료의 편의점 납품가를 올렸다. 밀키스, 핫식스, 사각사각 꿀베는 200원씩, 트레비와 아이시스8.0은 100원 인상됐다.

지난 5월에는 대상이 증가집 '시원칼 곰포기김치' (3.3kg) 가격을 4년 만에 5.7% 올렸다. CJ제일제당은 같은 달 말 '비비고 포기배추김치' (3.3kg) 가격을 3% 인상했다.

식품업체의 주장대로 최근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 값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상승했다. 특히 채소류 값이 28.5% 급등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12.1% 올랐다.

또 우유 원유 가격은 올해에는 동결했지만, 현재 1당 926원인 원유 가격이 내년 8월부터 1당 21원이 오른 1당 947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

터는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활용한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인 각종 식음료 가격이 오르면서 각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로 인해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업체들이 분위기에 편승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식품업체는 이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그러나 가계에 이중고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국회 점령한 코로나... 본청 폐쇄

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근무하는 행정 비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뉴스시스

코로나 확진세 주춤... 거리두기 연장 관심

지난달 17일 이후 첫 100명대 거리두기 연장 여부 주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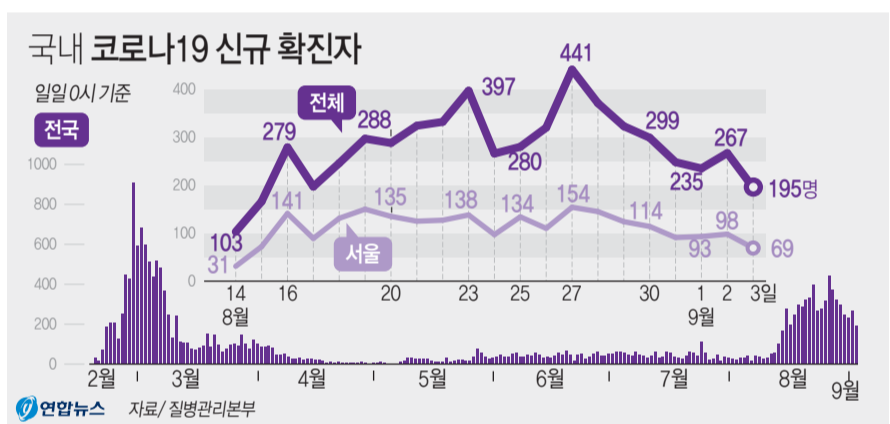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하락했다. 지난달 17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루어지는데다 중증환자가 150명을 넘어서며 긴장을 키우고 있다. 오는 6일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모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 늘어 누적 2만644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14일 이후 매일 세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27일 441명을 고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188명이 지역 발생했고, 서울 69명, 경기 64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이 148명을 차지했다.

다만, 여전히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전일 50대 암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서, 확진자가 나온 동관 7층, 8층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전수 검사한 결과 5명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 외 광진구 혜민병원과 도봉구 운동시설 메이트트니스, 인천 계양구 기도모임, 강남구 수서1단지아파트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위중·중증환자는 154명으로 급증하며 하룻밤새 31명이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망자도 3명 늘어 누적 329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6일 끝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환자 발생 양상, 집단감염 분포 등을 관찰하면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주말쯤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월 연휴와 8월 여름휴가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석 전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시킬 것"이라며 "연휴 기간에 감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추석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전경련 "코로나 이후 中 의존도 커져"

6월 이후 대중국 수출 플러스 전환 외인투자 대중국 의존도 높아져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출의 대(對) 중국 의존도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대(對) 중국 의존도도 높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1~7월 수출의 대 중국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1.5%p 늘었고, 올 상반기 대 한국 외국인투자에서 주요국 중 중국만이 작년 동기 대비 금액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 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 중남미 34.3%, 인도가 34.5% 가량 감소하며 평균 약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월 이후 대중국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2019년 1~7월 24.3%에서 2020년 1~7월 25.8%로 1.5%p 증가했다.

중국은 3월 초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2019년 GDP의 11.1% 수준인 약 11조위안(1914조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4월부터 산업생산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6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도 6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주요 품목의 대 중국 수출 실적은 살펴보면 올해 1~7월 대중국 수출은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LCD 등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했지만 중국의 신행인 프라 투자 확대, 원격근무·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 문화 정착, 5G 스마트폰 수요 확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반도체)~38.3%(컴퓨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국경 간 이동 금지·제한, 불확실성 증대로 신고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7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규모가 20년 상반기 중 일제히 감소하고, 미국과 EU의 경우 대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중국만 대 한국 직접투자 금액과 비중이 동시에 증가했다.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4% 늘어난 8억56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2019년 상반기 3.0%에서 2020년 상반기 11.2%로 8.2%p 증가했다.

/양성준 기자 ysw@

매매·전세 상승세 주춤... 관망세 전환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가 7·10 대책 영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감 등으로 고가와 주요 재건축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8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10% 상승, 전세가격은 0.15%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8%→0.07%)은 상승폭 축소, 서울(0.01%→0.01%) 및 지방(0.12%→0.12%)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0.16%→0.17%), 8개도(0.06%→0.07%), 세종(0.66%→0.51%))했다.

강북권인 은평구(0.03%)는 불광·응암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02%)는 리모델링 호재 있는 이촌동 위주로, 중랑구(0.02%)는 상봉·신내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02%)는 중계동 등 6억

원 이하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은 안정화 대책에 따른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 위축되고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강남구(0.01%)는 압구정동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했으나, 서초(0.00%)·송파구(0.00%)는 단지별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유지, 강동구(0.00%)는 그간 상승세 보이던 중저가 단지도 매수세 주춤하며 보합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51%), 대전(0.32%), 대구(0.20%), 부산(0.16%), 울산(0.14%), 충남(0.13%), 경기(0.11%), 강원(0.10%), 경북(0.09%) 등은 상승, 충북(-0.01%)은 하락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